

## < 참고 1 > 최종 선정위원회 명단

성명	주요이력
Mark S. Wrighton	워싱턴대학교(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명예총장 (현) 워싱턴대학교(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총장 (전)
Tim Hunt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2001) 프랜시스 크릭(FRANCIS CRICK) 연구소 명예과학자 (현) 오키나와과학기술대학원대학교(OIST) 교수 (현) 케임브리지대학교(University of Cambridge) 클레어 컬리지(Clare College) 종신 펠로우 (현)
김도연	울산공업학원 이사장 (현)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전)
염재호	SK(주) 이사회 의장 (현) 고려대학교 총장 (전)
유명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명예연구원 (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전)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전)

## < 참고 2 > 최종 선정위원회 심사평

### □ SNU 10-10 프로젝트를 향한 기대

SNU 10-10 프로젝트는 개별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훌륭한 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학문 분야를 선정해 세계적인 선도집단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그 철학에는 많은 이가 동의할 것이며, 이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을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 평가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학과(부), 연구기관들이 스스로의 목표를 높이고 국제적인 경쟁에 대한 관점을 가지게 되는 점도 훌륭하다. 각 학문분야 간 경쟁은 현상을 타파하고, 혁신을 위한 길을 찾도록 이끌 것이다. 성공적인 학문분야는 정부, 기업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연구의 장을 열 수 있을 것이며, 경쟁을 통해 교원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이 SNU 10-10 프로젝트의 중요한 측면이다. 한편으로는, SNU 10-10 프로젝트가 연구와 더불어 해당 학문분야의 문화와 제도를 새롭게 하는 일에도 기여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 □ SNU 10-10 프로젝트를 위한 제언

#### ○ 세계대학 순위 매몰되지 않고 역량 축적에 집중해야

단순히 서울대학교가 어떠한 순위를 차지하느냐에 초점을 맞춘다면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세계대학 순위 매몰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오히려 독창적이나 리스크가 큰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방해할 수 있기에 현명하지 않다고 본다.

세계대학 순위가 연구의 목적이 아닌만큼 상업적 평가에 매달리지 않는 SNU를 지향해야 한다. 세계대학 순위 체계가 가진 엄청난 관성을 감안한다면, 특정 순위권에 진입하는 것 보다는 역량 구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눈에 띄지 않는 학문분야에 대해서도 그 분야에서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지속적 관리 필요

SNU 10-10 프로젝트의 지속 여부는 지원을 받을 경우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계획들이 계속 존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프로젝트의 도전적인 목표만큼 각 학문분야는 성취 목표를 높이는 동시에,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전략과 계획, 수단을 갖춰야 한다. 우수한 학문분야들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갈 것인가도 중요하다. 매년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독려해야 한다.

□ 그 밖의 제언

서울대학교는 고등교육을 선도하고 다른 한국 대학들에 모델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과 연구의 질을 어떻게 균형되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한국 사회에서는 훌륭한 연구자 개인에 대한 지원은 이미 비교적 충분하게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전반적으로 대학의 연구지원은 역량 있는 젊은 조교수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아울러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 연구와 자율적인 연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연구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연구는 중요한 일이지만 서울대학교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에 더 많은 정성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학부 교육과 관련하여 21세기를 살아갈 미래 인재들이 과거와 똑같은 체제와 방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가 대학사회의 리더로서 고민하고 새로운 교육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한국의 경우 줄어드는 젊은 인력으로 인하여 우수한 인력의 유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적인 시야를 동반한 우수 해외 인력 유치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다른 나라의 유능한 젊은 인력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